

# 지역경제 회복·민생지원 추경 의결

## 제300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백석민)는 8월 19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분회의에 계류되어있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433백만원 증액된 585,563백만원(일반회계 570,341백만원, 특별회계 15,222백만원)으로 민생 현안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노력을 기울였다.

남구청으로부터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제출받은 남구의회는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818백만원과 전입 대학생 지원 193백만원을 삭감한 1,011백만원을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남구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과 복지사업 증진 등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제30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 백석민 의장 온택트 정책포럼 참석

“지방자치부활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자치분권·주민자치 새 시대 열어갑니다”

남구의회 백석민 의장은 지난 8월 24일 LG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온택트 정책포럼’에 참석하였다.

이 날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시대의 기초의회 역할과 지향점’, ‘중앙정부와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의 실질적 재

정 확충 방안’,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노력’, ‘주민 주체의 주민자치 강화’ 등의 주제로 심도있는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또, 각 구·군의회 간 정보와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 증진에 노력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한목소리를 낼 것을 결의하였다.



남구정책 및 남구발전 토론회 모습(2020.11.6.)



남구 다행복교육지구 추진 전문가 설명 및 토론회 모습(2020.11.20.)



한국커뮤니티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함께하는 공동체다큐멘터리 제작 간담회(2020.10.26.)

# 공부·연구하는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활발

## ‘남구 희망제작소’ 등 3개 단체 2020년 활동 시작… 우수정책 발굴

남구의회(의장 백석민)는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을 시작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1년 단위로 활동하는 연구단체는 1개 단체 당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 2020년 의원 연구활동 시작  
연구단체 활동의 원년인 작년에는 ‘남구 희망제작소(대표 김근우 의원)’, ‘남구 살림연구회(대표 고선화 의원)’, ‘남구 리엔지리어링(대표 강건우 의원)’ 등 3개 연구단체가 등록

승인되어 운영되었다. 먼저, ‘남구 희망제작소’는 경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협력사업으로 용호골목시장의 이해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사람 중심의 브랜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 ‘남구 살림연구회’는 재정 진단을 통한 남구의 구정 현안 추진과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구 리엔지리어링’은 남구 현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남구형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았다. 남구의 도시재생의 대안을 모색하고 남구 다행복지구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2021년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  
올해는 ‘남구 희망제작소(대표 이병준 의원)’, ‘남구 리엔지리어링(대표 김근우 의원)’, ‘남구 살림연구회(대표 고선화 의원)’, ‘남구 현미경(대표 김철현 의원)’ 등 4개 연구단체가 등록 승인되어 운영 중이다. 각 연구단체별 활동목적을 살펴보면, ‘남구 희망제작소’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찾기에, ‘남구 리엔지리어링’은 남구 현안사업에 타 지역 벤치마킹으로 남구에 안정적 정책 반영을, ‘남구 살림연구회’는 주민을 위한 남구정책 발굴에, ‘남구 현미경’은 남구 예산을 연구·분석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또, 올해는 각 연구단체별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남구 희망제작소’는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실태조사와 청년 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꾀하고 있다. ‘남구 리엔지리어링’은 ㈜부산남구미래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남구 살림연구회’는 남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구 현미경’은 남구정 예산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단체별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남구 정책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풀뿌리 의정’ 집대성, 남구의회 30년사 발간한다

## 예산 아끼려 외부용역 않고 내부 자체 인력으로 작업 11월 300권 공공기관 배부

부산 남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남구의회 30년사」를 펴낸다.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남구의회 30년 의정성과를 뒤돌아보고, 내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맞춰 미래 의정활동의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산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 없이 의장과 의원,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편찬위원회와 직원들로 자체 편집단을 구성하였다.

지난 4월부터 자료 수집 및 편집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정식 발간할 예정이다. 900여 페이지 300권의 책자는 구청,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